

□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3-2024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한국·캐나다 교류협력 프로그램
  - ARKO총괄기획자(코디네이터), 리서치사업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 2023년 6월 7일 13:00-16:00
  - 2차 PT/인터뷰심의\* : 2023년 6월 8일 17:00-19:30
  - \* ARKO총괄기획자(코디네이터)만 해당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2023-2024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은 2016년도부터 이어온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2년간 양국 간 문화교류에 이해와 관계, 협업을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예술위원회와 캐나다예술위원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양국의 예술 생태계와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접촉과 상호작용을 촉매하는 ARKO총괄기획자(코디네이터)와 2024년에 펼쳐질 다양한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리서치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ARKO 총괄기획자(코디네이터)>**

사전에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들을 기반으로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하였으며, 1차 심의회의에서 통과된 사업을 대상으로 2차 PT/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인 신청자의 국제교류분야 전문성·사업의 이해도(40%),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실현가능성(30%), 사업 사후관리 및 국제교류 기여도(30%)를 바탕으로, 총괄기획자(코디네이터)로서의 비전과 관점, 역할과 전략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양국에 대한 예술적 환경과 현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지원자인지, 장르를 넘나들며 기존의 네트워크나 교류 방식을 넘어 유의미한 교류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지원자인지, 그리고 양국에서 제시한 주제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론 국제 예술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로 발전시켜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자인지에 대해 세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예술인/단체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다채로운 접점을 만들고, 풍요로운 교감을 매개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간 국제교류의 총괄기획자(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안하기 보다, 자신의 단체나 장르에 국한된 특정 프로젝트의 기획을 제안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원신청서 그리고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위원들간 열띤 토론 끝에, 안타깝게도 ARKO총괄기획자(코디네이터)의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공유한 몇 가지 심도 깊은 고민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총괄기획자로서 양국간 어떤 의미있는 교류의 계기를 만들고, 잠재성을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현해나가고자 하는가였습니다. 후보자들의 국제교류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캐나다와의 전략적 예술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총괄기획자로서 한국의 참여 예술가/단체들에게 어떠한 영감과 영향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총괄기획자이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와 이를 수행할 역량과 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에서 제시한 주제들의 시의성과 연관성을 바탕으로, 총괄기획자만의 차별화된 기획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전개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에 부합하여 본 사업을 이끌어갈 적절한 후보자가 없었기에 아쉽지만 적격자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리서치사업>

사전에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들을 기반으로 서류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예술성(40%), 사업내용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그리고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30%)를 토대로 평가했습니다. 2024년 협업사업 계획을 전제로 하는 리서치사업이기에 사업준비 과정에서 예술가/단체들의 각 교류 단계와 가치, 잠재적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협력 파트너 예술가/단체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함께 리서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고안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서치를 준비하는 예술가/단체가 상호호혜적 교류를 전제로 하는지, 혹은 이번 공모에 맞춰 단발성 행사를 리서치사업으로 이름 지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기금 사업 취지에 맞게 양국이 재원 투입에 있어서도 수평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고민 혹은 협의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선정된 사업들의 경우, 충분한 사전 준비와 교류 목적의 구체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트너 예술가/단체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의 타당성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활동은 구체적이지만 그 목적이나 이유가 모호한 경우, 그리고 파트너 예술가/단체와의 충분한 대화 및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준비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와의 교류에 있어서 의미있는 질문이나 탐색이 동반된 리서치와 기획

내용이 결여된 경우, 그리고 대상 국가에 관계없이 특정 교류활동을 반복해나가는 사업들인 경우, 사업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개 유형의 심의회의를 통해 심의위원들은 캐나다의 예술 현장과 자연 환경, 사회 환경의 특성에 기반한 교류계획이 제한적이고, 왜 캐나다인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업들의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높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양국간 교류의 층과 폭이 얇고 한정적이었던 건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마감기한을 연장하며 예술계에 준비할 시간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프로젝트 자체나 ARKO 총괄기획자(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대상국가인 캐나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ARKO 총괄기획자(코디네이터)의 경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역할을 충족시키는 방식에 대해 향후 현장 자원을 고려한 대안을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한국-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은 국가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인 동시에 코로나 이후 국제교류가 회복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그 기대가 크며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리서치와 협업의 과정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양국의 참여 예술가들을 통해 교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질의와 그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도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정된 리서치사업들이 예술 현장의 다양성과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예술적 리서치로서 국가간, 문화간 예술교류의 가치를 좀 더 풍요롭게 발현시키길 기대하며, 국제공동기금사업이 국가 간이라는 국제교류의 층위의 무게로 예견할 수 있는 모양새와 규모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